

프랑스 영화 탐색 강의

-시적 리얼리즘과 심리적 리얼리즘-



Marcel Carné (1906-1996)



François Roland Truffaut (1932-1984)

시적 리얼리즘 **Réalisme poétique**

- 1930년~1940 즉 유성영화 초기부터 제2차세계대전 전까지 유행한 프랑스 영화 제작 경향
- 영국 영화 평론가 로저 만벨 **Roger Manvell**의 용어를 프랑스 영화 비평가 겸 사학자 조르쥬 사두이 차용한 표현
- 에밀 졸라의 자연주의 문학, 1,2차아방가르드,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영향 받음
- 주요 감독: 장 비고, 르네 클레르, 장 르누아르, **마르셀 카르네**, 마르셀 레르비에, 마크 알레그레, 작크 베케르, 줄리앵 뒤비비에
- 시나리오 및 대화(Dialogue) 작가: 시인 **자크 프레베르**, 앙리 장송
- 주요 인물: 작가 겸 제작자 마르셀 파놀, 벨기에 세나리스트 샤를 스파크, 미술 감독 라자르 메르송, 무대연출가 알렉상드르 트로네
- 주요 배우: 미셸 시몽, **장 가뱅**, **미셸 모르강**
-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과 **누벨바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시적 리얼리즘의 두 요소

리얼리즘적 요소

- 인민전선 **Front Populaire** 같은 사회 운동 노선을 취함
- 도시를 중심으로 사건 전개. 노동자-군인-직업여성 등 보잘것 없는 신분의 인물들과 환경으로 대중적 친밀함

시적 요소

- 사회 하층 계급과 이들의 숙명을 대변하는 저주받은 인물, 천민, 낙오자, 자살하는 화가가 중심 인물 (**저주받은 시인의 운명** 대입)
- 시인 **자크 프레베르**의 영화적 시나리오가 축을 이룸

시적 리얼리즘의 중심 인물

스토리보다 대화 강조

유성 영화 시대의 최초 프랑스 영화 트렌드, 시인 자크 프레베르 **Jacques Prévert**의 영향으로 극적인 요소를 부각. 영화에서 대사의 의미와 어휘를 강조하는 대화 장면을 중시



Le Cancre

Il dit non avec la tete
mais il dit oui avec le coeur
il dit oui ce qu'il aime
il dit non qu' prefesseur
il est debout
on le questionne
et tous les problemes sont poses
soudain le fou rire le prend
et il efface tout
les chiffres et les mots
les dates et les noms
les phrases et les pieges
et malgre les menaces du maitre
sous les huees des enfants prodiges
avec des craies de toutes les couleurs
sur le tableau noir du malheur
il dessine le visage du bonheur.

그는 머리로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가슴으로는 그렇다고 말한다
그는 그가 사랑하는 것에게는 그렇다고
하고
그는 선생에게는 아니라고 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고
선생이 질문을 한다
여러 종류의 질문을 다한다
문득 그는 웃음을 터뜨린다
그는 모두를 지워버린다
숫자도 단어도
날짜도 이름도
문장도 함정도
교사의 위협에도 아랑곳 없이
우등생 아이들의 야유도 모른다는 듯
여러 색의 분필을 들고
불행의 칠판에
행복의 얼굴을 그린다

Les feuilles mortes

Oh ! je voudrais tant que tu te souviennes
Des jours heureux où nous étions amis.
En ce temps-là la vie était plus belle,
Et le soleil plus brûlant qu'aujourd'hui.
Les feuilles mortes se ramassent à la pelle,
Tu vois, je n'ai pas oublié...
Les feuilles mortes se ramassent à la pelle,
Les souvenirs et les regrets aussi
Et le vent du nord les emporte
Dans la nuit froide de l'oubli.
Tu vois, je n'ai pas oublié
La chanson que tu me chantais.

{Refrain:}

C'est une chanson qui nous ressemble.
Toi, tu m'aimais et je t'aimais
Et nous vivions tous les deux ensemble,
Toi qui m'aimais, moi qui t'aimais.
Mais la vie sépare ceux qui s'aiment,
Tout doucement, sans faire de bruit
Et la mer efface sur le sable
les pas des amants désunis.

Fallen leaves

Oh I would like you so much to remember
The joyful days when we were friends.
At that time, life was more beautiful
And the sun burned more than it does today.
Fallen leaves can be picked up by the shovelful.
You see, I have not forgotten...
Fallen leaves can be picked up by the shovelful,
So can memories and regrets.
And the north wind takes them
Into the cold night of oblivion.
You see, I have not forgotten
The song you used to sing me.

(chorus)

This song is like us.
You used to love me and I used to love you
And we used to live together,
You loving me, me loving you.
But life separates lovers,
Pretty slowly, noiselessly,
And the sea erases on the sand
The separated lovers' footprints.

시적 리얼리즘의 기법

- 1920년대 독일 표현주의 영화와 다큐멘터리 형식을 도입
- 악의 도시, 추잡한 거리, 부르주아의 일탈 (모짜르트의 돈 죠반니 영화화) 등을 수용하면서도, 거리의 조도를 은밀하고 암울하면서도 몽롱한 분위기로 촬영
- 어둠의 효과로 현실의 장엄함을 강조
- 강제 원근법, 경사면 케이블카 촬영, 스튜디오와 일상 세트 동시 활용: 누벨바그로 계승

프랑스 영화의 전통

프랑수아 트뤼포의 <프랑스영화의 어떤 경향>

- 본질적으로 **시나리오 작가**와 주제의 쇄신
- 과감한 **걸작**의 채택
- 난해하다고 여겨지는 주제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관객들에 대한 신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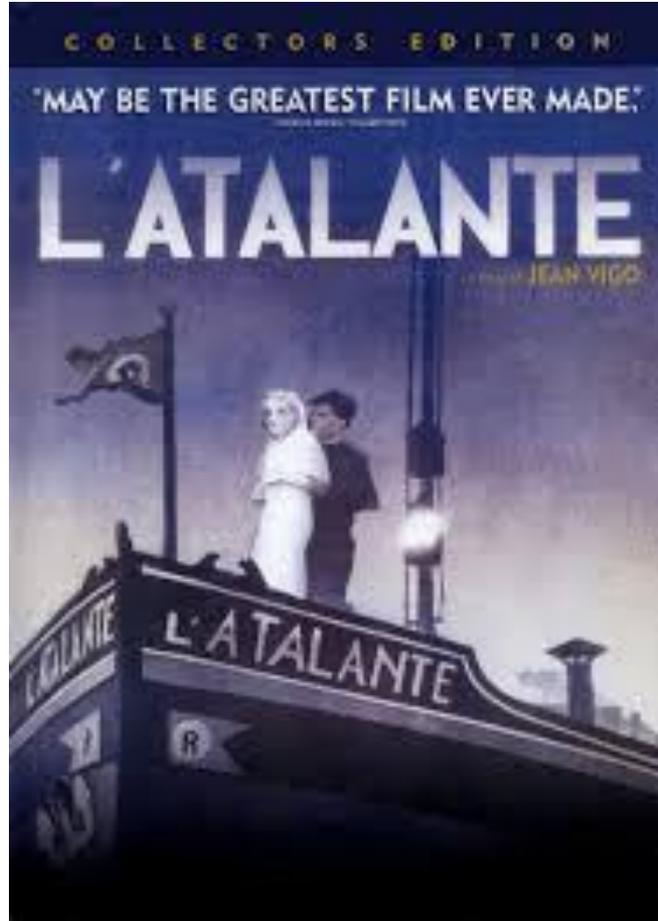
장 비고 Jean Vigo



<품행제로> 포스터



→ 동영상



라탈랑트 l'Atalante



→ 동영상

< 품행제로 *Zéro de Conduite* > 1933

원제Titre original : Zéro de conduite : Jeunes diables au collège

감독Réalisation : Jean Vigo

시나리오Scénario: Jean Vigo

주요 인물Acteurs principaux : Jean Dasté, Robert le Flon,

Pays d'origine : Drapeau de la France France

장르Genre : Comédie dramatique

러닝타임Durée : 41 minutes

출시Sortie : 1933

<품행 제로> (외출 금지) 감상 발취

- 이어지는 다음 장면에서는 교장선생님이 학생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선생님들과 다른 학생들의 모습들을 one take로 담았습니다. (카메라의 복잡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long take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맞는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 학교와 선생님들을 향한 투쟁을 다룬 영화임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축제를 즐기러 오는 마귀 할멈과 냄새나는 할배들 대가리를 날려 버리기로 맹세한다'라는 대사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제 장면을 보면 선생님들이 앞은 뒤로 치마를 입은 마귀네킹들이 앉아 있습니다. 마귀 할멈이라고 생각되는 얼굴들을 하고 의자에 뺏뺏하게 앉아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들을 향해 물건을 던지고 이에 맞은 선생님들, 즉 냄새나는 할배들은 도망가고 마귀 할멈들은 의자에서 떨어지며 학생들은 축제를 즐기러 오는 자들에 맞서 승리했습니다.

- 소통이 부재하는 교육제도와 학교의 모습이 경직된 마귀네킹과 연결되며 학교와 학생, 선생과 학생 사이의 벽을 연상할 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에서 <품행제로>로



Thepillow f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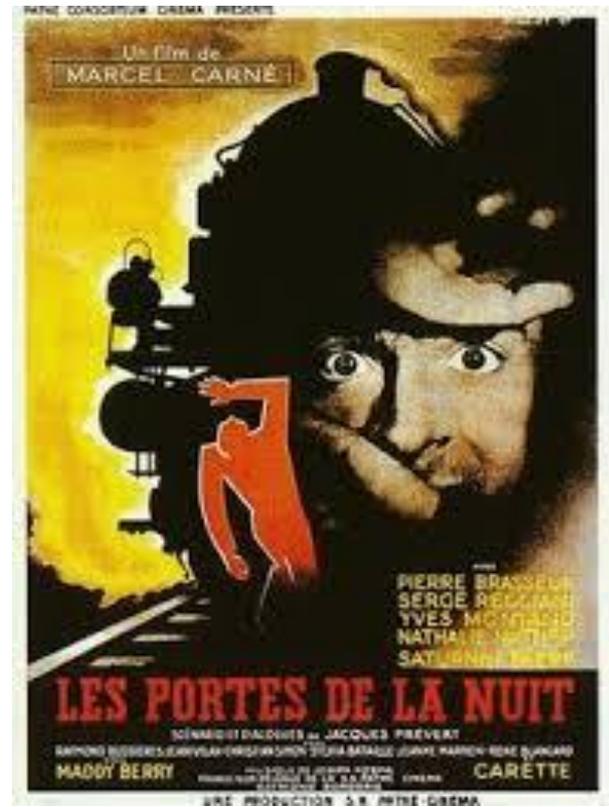
마르셀 카르네 Marcel Carné



밤의 방문객



안개낀 부두



밤의 문 → 동영상

심리적 리얼리즘 *Réalisme psychologique*

프랑수아 트뤼포의 누벨바그 선언문

<프랑스 영화의 어떤 경향>의 심리적 리얼리즘 비판 요약

- '품위의 전통'을 유지하며 외국 언론의 찬사를 목표로 매년 1946년부터 칸느와 베니스에서 황금 사자상과 대상 메달을 휩쓰는 시나리오 작가의 문학적 영화. 시적 리얼리즘이 이룩한 **프랑스 영화의 전통을 이탈**
- 주요 감독: 클로드 오탕-라라, 장 들라느와, 르네 클레망, 이브 알레그레 및 마르셀 파글리에
- 주요 세나리스트: 장 오랑슈, 피에르 보스트, 작고 시귀르, 알리 장송, 로베르 시피옹, 롤랑 로덴바그 등...
- 주요 방법론: 소설을 영화적으로 **치환**. 이 수법은 소설 속 **촬영할 수 있는 장면과 촬영할 수 없는 장면들을 구분하고** **촬영할 수 없는 장면들을 자신들 멋대로 그럴싸하게 그것과** **등가를 지닌 장면들을 만들어냄**
- **카메라는 왜곡된 소설의 스토리텔링 전달 도구 전략**

심리적 리얼리즘 영화의 원작 목록

- 성공 요인: 1) 그들이 각색하는 원작 수준을 믿는 관객
2) 그들의 각색 재치 (유명 스타 캐스팅)

아메데 에프르 사제의 <전원교향곡> 비판

“지드에 있어서 신앙을 종교적 심리학으로 축소시키는 것, 이제 이 심리학을 더욱 궁핍한 심리학으로 축소시키는 것... 이제 이런 질적 저하에, 미학자들에게는 매우 잘 알려진 법칙에 따라서, 양적 증가가 따를 것이다... **비극이 드라마가, 멜로드라마가 된 것이다.**”(<영화에서의 신 >)

심리적 리얼리즘의 오류

1) 고의적인 작품 정신 왜곡

2) 대중성을 의식한 고의적 독신 행위와 언어

(원문 변용)

- 정신에 관한 이러한 불충실성은 <육체의 악마> 품위마저 저하시킨다. 이 **연애 소설은 반군국주의, 반부르주아 영화가** 되어 버렸으며, 사랑에 빠진 목사에 관한 이야기인 <전원교향곡>의 지드는 **베아트릭스 벅고 같은 대중 작가의 부류에 속하게 되었고**, <릴르 드 생의 교장>은 그 모호한 제목에 대항해서 <신은 인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제목으로 바뀌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비친 '릴르 드 생' 섬 주민들은 **마치 브뤼엘의 <끝없는 대지>에서의 그 유명한 "천치"들** 같았다.

- 독신 행위와 언어의 경우 그것은 **주제, 감독, 배우의 선택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원작 소설가가 거절한 시나리오

-브레송 오마쥬-

브레송과 콕토에 앞서 베르나노스의 <어느 시골 사제의 일기>를 장 오랑슈와 피에르 보스트가 각색하였었다. 하지만 베르나노스는 그 의미 없는 복잡한 변화에 따른 지나친 왜곡을 이유로 이들 시나리오의 영화화를 거절해버렸다. 트뤼포는 베르나노스로부터 거절당한 이유를 '말 그대로 항상 고의적으로 정신을 왜곡하려는 관심'이라고 제시하면서, 브레송의 시나리오 글쓰기가 얼마나 영화적인지, 이와 반대로 오랑슈와 보스트의 시나리오 글쓰기는 얼마나 문자적인지 논리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소설의 내용 가운데는 영화화 할 수 없는 장면이 있으며, 이러한 촬영 부적합한 내용을 카메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소설의 내용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오랑슈와 보스트, 이들은 원작 소설의 작품 정신과는 거리가 먼 복잡한 플롯이 가미된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원전 정신의 몰이해의 소치로 규정한 트뤼포는 그의 글에서 이와 정반대로 소설의 내용을 그대로 시나리오로 옮긴 브레송의 시네마토그래프적 작가정신을 높이 사고 있다.

극심한 작품 정신 왜곡

신앙에 관한 논쟁으로 책 한 복판에서 신부와 아르센느라는 아둔한 무신론자가 대립한다 : “죽으면 모든 게 끝장이라!”라는 대사는 신부가 천박한 유물론자의 생각을 비판한 것이지만 심리적 리얼리즘 작가들은 이 말을 작가의 주장으로 수용하여 영화의 마지막 결론으로 사용한다. 베르나노스는 마지막 부분을 마감하면서 “죽으면 모든 게 끝장인데!”라고 하지 않고 “그러들 어떠하리, 모두가 은총이거늘”이라고 말했다.

심리적 리얼리즘 작가들은 배반 없이 만들어내겠다고 말하지만, 내[트뤼포]가 보기에는 많은 배반에 비해 창작은 꽤나 적은 것 같다. 한 두 개 정도의 세부사항 말고는. 오랑슈와 보스트는 <어느 시골 사제의 일기>를 영화화 할 수 없었다. 베르나노스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로베르 브레송은, “베르나노스가 살아 있어 자신은 작품과 함께 더욱 자유를 누렸었다”라고 선언했다. 이렇게 오랑슈와 보스트는 작가가 살아 있기에 곤란을 겪지만, 브레송은 작가가 죽어버려 곤란을 겪었다.

심리적 리얼리즘 대표작



금지된 장난 Jeux Interdit



전원교향악
Symphonie pastorale



육체의 악마
le Diable au corps